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현 경 자<sup>†</sup>

우리사회복지연구소

김 연 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여 우울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6개 복지관 또는 시민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558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4가지 근원(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사회복지사 지지)으로 나누어 각각의 회귀분석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각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만 유의미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각 사회적 지지 유형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의 4가지 근원을 하나의 회귀분석모형에 넣고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시댁지지의 직접효과는 경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직접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향후의 연구 방향과 임상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정신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 이 논문의 초안은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 14회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발표되었음. 본 논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사업을 지원해준 공동모금회와 자료수집에 참여해 준 36개 기관의 실무자분들과 여성결혼이민자분들께 감사한다.

† 교신저자 :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413-77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70, 109-302.  
E-mail : swwhyun22@hanmail.net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새롭게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응 상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한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가정에 홀로 편입되어 문화적응의 부담이 훨씬 크고(윤혜미, 2009),<sup>1)</sup> 그러한 다문화가정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임혁, 2010). 기존문헌을 보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언어 및 문화차에 따른 혼란, 가족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당사자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Berry, 1997; Jayasuriya, Sang, & Fielding, 1992). 따라서 문화적응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 이동을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반응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정진경, 양계민, 2004 참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기보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대처방식 및 내·외적 자원의 여부에 의해 달라지거나 조절될 수 있다(Donnelly, 2002).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다수가 언어문화 장벽,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회·문화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응력이 한정되므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이 적응적 자원으로서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절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은 개인의 내적 특성, 가족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여러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중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스트레스 대처를 돕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부터 받는 비공식적 지지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해 제공되는 공식적 지지로 나누어지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 시댁식구, 친구나 동료,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지만, 해외이주를 홀로 감행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그러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특히 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의 다양한 주요타자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각각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1) 국제결혼이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남성들에게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 한국남성과 중국, 베트남 등 저개발국 출신 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2000년에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7,304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2.2%를 차지하였으나 10년 후인 2010년에는 약 4배에 달하는 26,274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실시된 연구들은 실태조사(예: 보건복지부,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유린 파악(예: 위훙, 2003; 윤형숙, 2004), 정착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과 부부 및 가족갈등(예: 김오남, 2006; 정혜영, 김진우, 2009; 한진수, 2006) 등의 적응 이슈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외에 결혼만족, 결혼안정 등 결혼생활의 안녕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있다(현경자, 2012 참조). 미시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요인(권복순, 2009;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대처전략(김희주, 은선경, 2007),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 적응(김순규, 이주재, 2010)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예측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함께 조사한 연구들(예: 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현승, 2010; 임혁, 2010)이 소수 발견된다. 이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은 임현승(2010)의 연구가 유일해 보이고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문화적응이나 생활적응 상의 스트레스가 이주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김미령, 2005;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이주외국인 노동자(김희숙, 2006; 이인선, 2004; Kim & Kim, 2008), 해외유학생(경수영, 장수미, 2010; Dao, Lee, & Chang, 2007), 미국의 이민자(Mui & Kang, 2006; Salgado de Snyder, 1987), 대만에

이주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Lin & Hung, 2007)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 이동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적인 이주민이나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참조). 이 연구들 가운데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매개할 뿐 아니라 조절함을 보여준 임현승(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면밀히 살펴본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근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쳐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그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낮추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받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네 가지로 나누어 이들 변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여 낮추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각각 조절변인으로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예측하고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다각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및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돕고 임상실천현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문헌고찰

###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삶의 뿌리를 타문화권으로 옮기는 영구적인 이주민들이 이주국에서 직면하는 도전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문화적응이다. 문화적응(acculturation) 또는 문화접변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뜻하며(Gibson, 2001),<sup>2)</sup> 이

2) 문화적응은 영어, accultur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이를 문화접변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엄한진, 2011) 문화변용으로 번역한 연구자들(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도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문화적응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주국에서 살아가는데 적절한 행동, 사회기술, 사고양식 등을 습득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당사자의 태도, 가치관, 자기해석, 문화정체성, 행동 등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Ryder, Alden, & Paulhus, 2000). 타 문화와의 대면은 성장과정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의문, 호기심, 감수성 등을 회복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한경구, 2003) 지속적인 문화접촉과 그에 따른 변화과정에서 경험되는 혼돈, 갈등, 차별, 소외감 등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 행동 및 사고양식들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를 뜻하며 향수병, 차별인식, 두려움, 죄책감, 문화충격 등을 포함하고(권복순, 2009), 이민자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간주된다(양옥경, 김연수, 2007).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 우울과 불안(전우택, 2000; Berry & Sam, 1997)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 거주 멕시코계 기혼여성 이민자(Salgado de Snyder, 1987), 중국계 이민자(Shen & Takeuchi, 2001), 아시아계 노인이민자(Han, Kim, Lee, Pistulka, & Kim, 2007; Mui & Kang, 2006)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기혼여성이민자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16%에 이를 만큼 높았다.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경기도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이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였다(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혁, 2010; 임현승, 2010). 이 외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수영, 장수미, 2010;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나라 및 지역별로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 이민 자체가 우울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이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도 정신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7 참조). 일례로 캐나다에서 임신 중인 여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 본 연구에서 임상적 우울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우울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Zelkowitz, Schinazi, Katofsky et al., 2004).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2005, pp.221-222)가 2005년에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이용하여 우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5.3%가 우울증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상대가 불완전하고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하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일수록 우울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sup>3)</sup> 또한 2006

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임상적 우울의 임계치를 초과한 집단의 여성들이 비우울 집단의 여성들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정폭력 등을 보고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반면에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변수의 수준을 보고한 정도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김연수, 2007).

이처럼 국내외의 기혼여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임상적 우울이 시사되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일을 보다 빈번히 경험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이 지적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대처방식 및 내·외적 자원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에 단신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감, 외로움, 사회적 차별, 경제적 곤란, 정체성의 혼란 등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에 취약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이 제한적이고(김순규, 이주재, 2010), 원가족이나 모국의 친지들과

3) 우울증상을 보인 결혼이민여성들의 비율은 일반 성인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같은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확인된 비율(5%)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이민자로서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와 연관됨을 시사하였다.

형성했던 사회적 지지체계와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적응 상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형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감소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을 돕는 중요한 외적자원이 되는 점에 주목하여(Choi, 1997; Chou,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정신건강을 보호하거나 우울을 직접 낮추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sup>4)</sup>

####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과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 기여

사회적 지지는 이주민,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포함하여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Barrera, 1986; Lakey & Cronin, 2008; Thoits, 1986; Uchino, 2004),<sup>5)</sup> 이에

4) 앞서 언급한 양옥경과 김연수의 연구(2007)에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와 같은 자원변수들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전체 집단의 우울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만 4문항으로 측정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대처방식, 내·외적 자원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을 시도함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 측면이나 개인이 사회적 지지망에 통합된 정도, 지지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 측면에서 그 효과를 밝히고 있다(Cohen & Wills, 1985). 이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지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완충시켜 개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안녕을 돕는 주효과(main effect)가 있다(Lakey & Orehek, 2011).<sup>6)</sup>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 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나 긍정적인 직접효과(또는 주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와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하며 이 두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대표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들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이나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존재여부, 지지망 특성

5) 사회적 지지에 관한 논문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폭 넓게 이루어져 방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심리학회의 자료 베이스인 PsycINFO에 약 33,000개, 의학자료 베이스인 Medline에 약 45,000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Lakey & Orehek, 2011 재 인용).

6) 아울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다루는 문헌연구들(예: Cohen & Wills, 1985; Lakey & Orehek, 2011)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이주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Naidoo, 1985, 정진경,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 한국, 중국, 필리핀계 미국 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넓고 밀집되어 있을수록(Kuo & Tsai, 1986), 그리고 한국계 이민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in, Han, & Kim, 2007). 국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에 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김현숙,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낮추었고(양옥경 외, 2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수가 많고 한국인과의 교류가 빈번할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였다(임혁, 2010). 반면 한국이나 대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지각하는 주요 타자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우울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7; Lin & Hung, 2007). 또한 가까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김미령, 2005), 모국출신 친구나 현지인 친구의 여부는 이민자, 유학생 등의 심리적 문제의 감소와 정서적 안녕에 기여하였으며(Furnhan & Li, 1993; Ying & Liese, 1991),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Sumer, Poyrazli, & Grahame, 2008).

이에 비해 문화 이동을 경험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조절하고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임현승(2010)의 연구가 발견된다. 국외 연구들의 경우,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 이민자들이 정착지에서 지각하는 차별이나 이주전의 계획 미흡으로 경험하는 우울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었고(Chou, 2009, 2012), 멕시코계 미국 대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의 지지와 적극적인 대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tt, Iturbide, Torres Stone et al., 2007). 반면 미국의 라틴계 대학생들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가 지지되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되는데(Crockett et al., 2007 참조), Lakey와 Orehek(201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는 연구들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직접효과는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여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현승(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구별하지 않았고 게다가 조사참여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평균 9.8년으로 보다 최근에 국내에 이주하여 문화적응 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표본의 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가 지지된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 근래에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가정하는 완충가설(buffering hypothesis)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활사건은 당사자에게 그 사건이 위협으로 평가되는가 여부, 즉 1차 평가(primary appraisal)와 위협으로 평가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보는 판단, 즉 2차 평가(secondary appraisal)에 의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노력,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 회피, 사회적 지지 구함 등의 다양한 대처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이 저해되거나 보호된다. Cohen과 Wills(198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스트레스-대처 과정의 두 지점, 즉 생활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처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완충한다. 다시 말해, 완충가설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할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친구, 가족 등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실제의(enacted) 또는 지각된(perceived) 다양한 지지가 그런 조절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Lakey & Orehek,

2011). 이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응 상의 어려움들은 언어와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적 영향은 배우자, 시가족, 친구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등 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그러한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지지를 받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접 정신건강에 기여하여 우울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보상되는 역할들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안정감, 예측가능성, 정체감, 자기 가치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Thoits, 1985). 최근에 Lakey와 Orehek(2011)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간의 정적관계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이 부재한 점에 주목하여 관계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관계조절이론(relational regulation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용자의 정서, 생각 또는 행동이 바람직하게 조절됨으로써 안녕감이 강화되는 주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총체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희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지지의 근원을 구분해서 개별적인 직접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고 필

7) 이 연구는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는데, 횡단연구라 변수들 간의 관계방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론이 중요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도 지지의 근원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 효과와 직접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받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네 가지로 나누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 변인들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그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여 낮추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서 각각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자 특성 및 표집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이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6, 2007 테마기획 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와 참여자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의 일부가 이용되었다. 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는 비확률 할당표집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선정되었

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원사업 수행기관들 각각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의 조사가 할당되었고,<sup>8)</sup> 조사참여자의 선정에는 기관에 등록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가 고려되어 기관에 할당된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그러한 국적별 분포비율과 일관되게 하는 목적표집이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받은 수행기관의 실무자가 진행하였고 2008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조사로 57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미완성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가 제외되어 실제 자료는 총 558명의 설문지에 기반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출신국의 비율은 베트남(41.4%), 중국(21%), 필리핀(15.1%), 일본(6.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35.7%)와 중소도시(26.5%) 거주자의 비율이 총 62.2%로 농산어촌(19.4%) 및 도농복합지역(11.1%) 거주자의 총 비율(30.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58.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9%, 40대 이상이 10.6%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8.8세(SD=7.3세)였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다양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교 중퇴 또는 졸업이 3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하가 23.9%, 전문대 또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자가 각각 15.3%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의 정규교육 했수 평균은 10.9년(SD=3.2)으로 고등학교 중퇴에 해당되었다. 결혼상태는 조사대상자들

8) 조사참여 기관들은 총 36개로 2008년도에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각 시도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다.

의 80% 이상이 초혼이었고 그 외 동거 10.7%, 재혼 7.2%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45.4개월로 약 3년 9개월이었고, 이 여성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46.4개월로 결혼기간 평균과 거의 동일하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도 10.4%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속한 자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sup>9)</sup> 이러한 조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서 드러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서 유사하여 본 연구의 표본이 편의표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비교적 부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측정도구<sup>10)</sup>

####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9)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9)의 연구보고서에 있다.

10)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작성되었고, 설문지는 전문번역가와 이중언어 능통자들에 의해 6개 국어, 즉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역 상의 오류, 의미 일치 등이 검토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설문지가 없는 경우(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자들에 한해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가 이용되었다. 전체 척도 중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차별인식, 향수병, 문화충격 영역에 해당하는 총 14문항이 사용되었다.<sup>11)</sup> 측정에 이용된 문항들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나는 한국 사람과 다르게 취급받는다.’,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내용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느낀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각해보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영역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뜻하며, 신뢰도 계수는 .87로 양호했다.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주요 타자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가 이용되었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및 주요타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와 더불어 원칙도에 있는 주요타자의 지지를 전문가(사회복지사)지지로 구체화시키고, 가족지지를 남편지지와 시대지지로 구분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4가지 근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원칙도의 문항들이 사회적 지지의 근

11) 이 척도는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권복순, 2009)

원에 따라 조금씩 측정항목의 내용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번역된 척도의 문항들 또한 원척도의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시댁지지 문항으로 ‘나의 남편(시댁식구)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남편(시댁식구)으로부터 얻는다.’가 있고, 전문가지지 문항으로 ‘나는 내게 위안을 주는 복지관/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 있다.’, ‘나는 기쁠 때와 슬플 때 이를 말할 수 있는 복지관/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 있다.’ 등이 있다. 끝으로 친구지지의 문항으로 ‘나의 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정말로 노력한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척도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양호했다.

### 우울

우울의 측정에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형 우울증 선별검사도구로서 미국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발된 것이다(Radloff & Locke, 1986, p.177).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측정은 지난 1주 동안 경험하였던 우울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들에 대한 빈도를 중심으로 4점 척도, 즉 ‘0=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하루가 못되게)’ ~ ‘3=거의 항상 또는 늘 그렇게 느꼈다(5-7일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묘사된 항목

들은 역코딩 되며, 척도의 점수는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양호했다.

### 통제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통제변인들로 포함되었다<sup>12)</sup>.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교육받은 년수를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에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한국어 구사능력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조사대상자가 국내에 이주하여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았다’, ‘5. 매우 어려웠다’)로 측정한 변인이 사

12)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울 및 정신건강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 학력, 결혼기간, 한국어 능력, 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변인(양옥경 · 김연수, 2007; 정기선 · 한지은, 2009; 임혁, 2010) 등이 연구모형에 투입되어 우울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결혼기간(양옥경 · 김연수, 2007), 경제적 스트레스(정기선, 한지은, 2009), 학력과 소득수준(임혁, 2010)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한국 거주기간 대신 결혼기간을 선정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상 결혼과 함께 한국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남편 및 시댁식구로부터의 지지도 이 시점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은 한국거주기간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본 연구에서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83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용되었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가 이용되었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고려된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을 위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변수의 값에서 각각 평균값을 빼서 센터링한 후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사회적 지지의 4가지 근원별로 각각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각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것과 하나의 회귀분석 모델 안에 4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모두 함께 포함시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다중회귀분석 시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VIF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 분석결과

####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및 통제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남편, 시댁식구, 친구, 전문가(사회복지사)

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통제변인인 연령, 학력, 결혼기간, 경제적 어려움 및 한국어 능력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1(SD=.64)로 2점 ‘그렇지 않다’와 3점 ‘약간 그렇다’ 사이에 해당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sup>13)</sup> 반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43(SD=.62)으로 3점 ‘약간 그렇다’와 4점 ‘그렇다’의 중간에 해당되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평균 3.79(SD=.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의 인식이 평균 3.47(SD=.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서 남편과 친구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회귀분석에 고려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66에서 -.01 범위에 있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통제변인인 연령과 결혼기간이었다( $r=.66, p<.001$ ).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4가지 유형별 사회적 지지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21\sim.04$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편과 시댁식구로부터

1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로 그 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국에 대한 향수 영역의 평균이 3.26(SD=.82)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문화충격과 차별감 영역( $M_s=2.57, 2.70$ ;  $SD_s=.82, .71$  각각)은 모두 2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평균적으로 4년 미만인 이주여성 응답자들은 모국에 대한 향수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 문화충격이나 차별에 대한 지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표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및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문화적응 스트레스	-										
2. 남편지지	-.10*	-									
3. 시댁지지	-.21***	.53***	-								
4. 친구지지	.04	.22***	.36***	-							
5. 전문가 지지	.08*	.25***	.22***	.37***	-						
6. 우울	.36***	-.36***	-.36***	-.13**	-.10*	-					
7. 연령	-.06	-.15**	-.17***	.04	.09*	.09*	-				
8. 학력	-.14**	-.03	-.05	.10*	.18***	.02	.34***	-			
9. 결혼기간	-.08	-.10*	-.19***	-.01	-.05	.07	.66***	.33***	-		
10. 경제적, 어려움	.16***	-.34***	-.29***	-.12**	-.04	.31***	.19***	.13**	.20***	-	
11. 한국어 능력	-.02	.15***	.12**	.15**	.13**	-.06	-.01	.04	.17***	.05	-
평균	2.71	3.79	3.22	3.47	3.16	.79	28.8	10.9	45.4	2.99	3.06
S.D	.64	.83	.93	.75	.94	.42	7.3	3.2	43.07	1.03	.72

\* $p < .05$ , \*\* $p < .01$ , \*\*\* $p < .001$

받는 사회적 지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0, -.21, p < .05, .001$  각각).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4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 변수들과 우울의 관계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36, p < .001$ ), 사회적 지지 변수들은 모두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0 \sim -.36, p < .05$  이하).

####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상호작용 변수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4가지 유형별로 실시된 회귀 분석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각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VIF값을 산출하여 확

인한 결과 4가지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1.01~1.82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의 각 지지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 시댁식구, 친구, 전문가(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든 모형들에서 우울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beta_s = .29 \sim .37, p < .001$ ), 남편과 시댁식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우울감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직접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beta_s = -.25, -.20$  각각), 친구 지지와 전문가 지지에 대한 지각도 우울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_s = -.13, -.11, p < .01, .05$  각각).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형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접 및 상호작용 효과

사회적 지지 모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남편지지모형		시댁지지모형		친구지지모형		전문가지지모형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0	.02	.00	.03	.00	.05	.00	.05
학력	.00	.02	.00	.02	.00	.03	.01	.04
결혼기간	.00	.02	3.12	.00	.00	.02	7.36	.01
경제적 어려움	.07	.15***	.08	.19***	.09	.21***	.10	.23***
한국어능력	-.02	-.03	-.02	-.04	-.03	-.05	-.03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32***	.19	.29***	.23	.34***	4.94	.37***
근원별 사회적 지지	-.13	-.25***	-.09	-.20***	-.07	-.13**	-.05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x 근원별 사회적 지지	-.02	-.03	-.01	-.01	.01	.01	.04	.06
상수	.48**		.31		.09		-.03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5(.24)		.23(.22)		.21(.20)		.21(.20)	
F	23.05***		20.30***		18.11***		17.99***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조절하여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인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가 유의미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요약하면,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예측대로 우울에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여 우울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조절효과는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

14) 본 연구의 통제변인인 결혼기간 대신 한국 거주기간을 통제변인으로 넣고 표 2에 제시된 4가지 연구모형을 재분석해본 결과, 표 2의 주요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녀유무 등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을 통제변인에 추가해보았을 때도 분석결과는 표 2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한국거주기간이나 자녀유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가지 유형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실시된 회귀분석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4가지 유형을 하나의 회귀분석 모형에 넣고 상대적

표 3. 4가지 유형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분석

	예측변인	우울	
		B	Beta
통제 변인	연령	.00	.03
	학력	.01	.03
	결혼기간	.00	.00
	경제적 어려움	.06	.15***
	한국어능력	-.01	-.01
직접효과 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31***
	남편지지	-.10	-.20***
	시댁지지	-.04	-.09+
	친구지지	-.03	-.05
	전문가지지	-.01	-.03
상수		.62***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6(.25)	
F		19.36***	

+p<.10 \*\*\*p<.001

영향력을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주효과만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p<.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였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 가운데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남편의 지지였고, 다음으로는 시댁 식구로부터의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클수록 우울을 보고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논 의

###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우울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회귀모형분석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직접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4 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분석에서 남편과 시댁 지지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방안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다양한 근원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상적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한 정도는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낮았다고 보고한 양옥경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지 않고, 언어 장벽 등으로 주류사회와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인 점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변인이나 그 밖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었

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이나 정신건강을 연구한 양옥경, 김연수(2007)와 임혁(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반면 이 여성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3.43)을 보였고, 근원별로는 남편지지에 대한 지각이 평균 3.79로 가장 높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남편이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는 기존연구들과 일관되게 개별적인 회귀모형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akey와 Orehek(2011)이 제안한 관계조절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맺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며, 특정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함께 하는 활동이 긍정적 경험을 포함할 때 긍정적 정서가 촉진되고 이는 나아가서 당사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자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지지 제공자와의 긍정적 경험에 기반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 물질, 정보 등의 다양한 도움을 실제로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긍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배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촉진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보다 폭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경험적

15)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20.6%로 낮고 과반 수(56.5%) 이상의 가족생활 주기가 신혼기, 임신기 또는 영아기에 해당되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주류사회와의 접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4가지 근원 중 전문가(사회복지사) 지지의 효과가 개별분석에서 예상보다 적었고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설문조사지에 이용된 ‘복지관/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등과 비교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이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이나 국적별 모임 등과 같은 집단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만, 특별히 제기되는 개인문제나 가족문제 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의 개별적인 관심이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울에 대한 전문가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원칙도와 일관되게 가족(남편과 시댁), 주요타자(사회복지사), 친구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측정 내용의 차이가 연구결과의 차이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이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효과, 즉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보다 낮은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

날 때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참여자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아 이 변인과 우울과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Lakey & Orehek, 2011),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시켜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적이 있다(임현승, 2010). 게다가 스트레스 완충가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지배해왔으므로(Lakey & Orehek, 2011) 이 연구의 어떠한 점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여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완충가설을 지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야기한 특정 사건에 대한 대화와 상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으로 개념화되고, 그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Cohen & Wills, 1985).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기능적으로 개념화되어 측정되었으나 측정문항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향수병, 차별, 문화적 충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미흡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심과 지지 제공에 초점을 맞춘 측정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여준 임현승(2010)의 연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사참여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평균 9.8년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약 3.8년)보다 6년이 길다.<sup>16)</sup>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한국 사회를 보다 많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 것들에 기반 한 것일 수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주요결과들 외에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유일하게 유의했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한국생활에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에서 자립을 돕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근원들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가 컸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적 개입에서 남편들의 사회적 지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증진시키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남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부부들의 최초 면접이나 가정생활사정(assessment)시 남편의 사회적 지지를 이주 여성이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편이 어느 정도 지지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태도가 남편의 표현 부족이나 언어차로 이주여성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부간에 문화차와 언어

16) 이 두 연구는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와 Zimet 등(1988)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유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영역만 사용하였고(각주 13 참조), 사회적 지지 원척도에 있는 주요타자의 지지를 전문가(사회복지사) 지지로 구체화시키고, 가족지지를 남편지지와 시댁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 반면에 임현승(2010)의 연구는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른 논의에 앞서 밝힌다.

차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의 이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에서 상호 개방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보다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개별적, 집단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의 사회화로 관계형성 기술이 미흡할 수 있는 남편들이 외국인 부인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남편교육 시 애정표현, 배우자에 대한 경청 등의 기술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어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함께 하는 활동들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시댁식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우울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시댁식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시댁식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의 내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가족문제와 관련된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입 시 시댁식구들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를 잘 사정하고, 시댁식구들이 여성결혼이민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지자로 지각될 수

있도록 가족교육 등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네 가지 사회적 지지 근원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에서 전문가(사회복지사) 지지와 친구 지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개별 분석에서 이들이 우울을 낮추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사회복지사)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인식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을 때 이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곤란이나 가족문제 등으로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개별적인 관심과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 현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입 시 친구관계의 폭과 질을 살펴보고 이 여성들이 자조모임이나 클럽활동, 국적별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관계로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될 수 있게 돕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와 함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다양한 지지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이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체계

를 개발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이들이 한국생활 및 문화적응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지체계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가 담보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특정지역의 거주자들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 보다 표본 상 진일보 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자들로서 이미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자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문화적응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문화적 도전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문화적응을 위해 노력하는가도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중요해 보인다. 비록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문화적응의 이슈를 지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조명해

보았으며, 가족, 친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근원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수영, 장수미 (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99-421.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순규, 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김희숙 (2006).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주노동자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마석지역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엄한진 (2011).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 위 흠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 협 · 김성국 · 정근식 ·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321-349). 서울: 한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윤희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이인선 (2004).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임 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임현승 (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한국가족복지학, 15(2), 27-45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서울: 으뜸.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혜영, 김진우. (2009).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
- 통계청 (2011). 국제결혼 및 여성결혼이민자 통계(<http://www.kosis.kr>).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경구 (2003). 왜 문화인가.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pp.19-31). 서울: 일조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현경자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2), 241-271.
-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343-365.
- Barrera, M., Jr.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 Sam, D.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Vol 3* (pp.291-326).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Choi, G. (199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 81-97.
- Chou, K. (2009). Pre-migration planning and depression among new migrants to Hong Ko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4(1-3), 85-93.
- Chou, K.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new migrants to Hong Ko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8(1-2), 63-70.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nstantine, J., Okazaki, S., & Utsey, S.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30-241.
- Crockett, L., Iturbide, M., Torres Stone, R., McGinley, M., Raffaelli, M., & Carlo, G.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347-355.
- Dao, T., Lee, D., & Chang, H. (2007). Acculturation level, perceived English fluency,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1(2), 287-295.
- Donnelly, T. (2002). Contextual analysis of coping: Implications for immigrants' mental health car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3(7), 715-732.
- Furnham, A., & Li, Y. (1993).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nese community in Britain: A study of two gener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109-113.
- Gibson, M.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19-23.
- Han, H., Kim, M., Lee, H., Pistulka, G., & Kim, K. (2007). Correlates of depression in the Korean American elderly: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2(1), 115-127.
- Jayasuriya, L., Sang, D., & Fielding, A. (1992). *Ethnicity, im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of Australian research*. Canberra: Bureau of Immigration Research.
- Kim, H., & Kim, S. (2008).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78-100.
- Kuo, W., & Tsai, Y.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2), 133-149.
- Lakey, B., & Cronin, A. (2008). Low social support and major depression: Research, theory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K. S. Dobson & D. Dozois (Eds.), *Risk factors for depression* (pp.385-40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49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n, L., & Hung, C. (2007). Vietnamese women immigrants' life adapta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4), 243-254.
- Mui, A. C., & Kang S. Y. (2006).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sian immigrant elders. *Social Work*, 51(3), 243-255.
- Naidoo, J. (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 R. Langunes &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pp.76-92).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Radloff, L., & Locke, B. (1986).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urvey and the CES-D scale. In *Community Surveys of Psychiatric Disorder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Ryder, A., Alden, L., & Paulhus. D.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Salgado de Snyder, V.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Pt2), 435-448.
- Shen, B., & Takeuch, D. (2001). A structural model of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nes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387-418.
- Shin, H., Han, H., & Kim, M. (200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3), 415-426.
- Sumer, S., Poy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4), 429-437.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51-72).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Uchino, B. N. (2004). *Social support and physical*

- health: Understand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our relationship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Ying, Y., & Liese, L.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 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3), 345-366.
- Zelkowitz, P., Schinazi, J., Katofsky, L., Saucier, J., Valenzuela, M., Westreich, R., & Dayan, J.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pregnant immigrant women. *Transcultural Psychiatry* 41(4), 445-464.
- Zimet, G., Dahlem, N., Zimet, S., &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1 차원고접수 : 2012. 10. 29.  
심사통과접수 : 2012. 12. 07.  
최종원고접수 : 2012. 12. 24.



##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young Ja Hyun**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Yoen Soo Kim**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the direct effects on depression of four different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e., husband, in-laws, friend, and social worker), and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these support measures moderate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through the 36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distributed nationwide. As expected,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respondents with a higher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expressed a higher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ll analyses. In separate analyses for each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ts interaction term with acculturative stress, each support measure show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depression, and none of the interaction terms was significant. In an analysis of the full model, including 4 types of social support measure, only two support measures, perceived spouse support and in-laws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a positive direct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n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may not moderate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se women's depression. Finally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linical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 mental health,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